

2023 제42회 대한민국건축대전

국제 일반공모전 상세요강

1. 취지

한국건축가협회는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건축 부문이 폐지됨에 따라 이의 전통과 의의를 계승하여 “대한민국건축대전”을 창설하면서 범 건축인이 참여하는 뜻 있는 국가적 행사가 될 것을 지향하였다. 이에 지난 30여년 동안 국내 건축공모전으로서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반공모전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국제 공모전으로 개최하였다. 이제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진 건축가를 발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고자한다.

2. 주제

2050년의 우리의 건축과 도시

초연결 + 초융합 + 초지능의 시대

Architecture and the Cities in 2050

Era of Hyper - Connectivity + Convergence + Intelligence

[별첨1. 주제 설명]

3. 공모 조직

3.1. 주최/주관: (사)한국건축가협회

3.2. 후원: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4. 응모 자격

4.1. 건축과 도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국적 상관없음)

4.2. 1인 1작품, 개인지원만 가능

5. 상세일정

내 용	일 정 (2023년)	비고
주제 공고	2월 27일(월)	
공고 및 참가등록	4월~7월12일(수) 17시까지	
1차 작품 접수	7월 12일(수) 17시까지	우편 및 방문 접수
1차 심사	7월 3~4주	
2차 작품 접수 (1차 심사선정자에 한함)	8월 3주~4주	방문접수
2차 심사	8월 3주~4주	
3차 심사 (공개평가)	9월 3주	
시상식 및 전시회	10월(예정)	대한민국건축문화제

※ 상기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6. 심사

6.1. 심사위원 구성 및 선정

6.1.1. 건축전문가 7인~8인

성명	소속	비고
김재경	한양대학교	
김정임	(주)서로아키텍츠	
김찬중	더_시스템랩	
민성진	SKM Architects	
민현준	홍익대학교	
서영주	(주)어크로스 건축사사무소	
윤한진	푸하하하프렌즈	
장윤규	국민대학교	

※심사위원에 대한 구체적 소개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 심사기준(공통)

6.2.1 심사위원회는 1명의 심사위원장을 선임하고, 심사방법 및 당선작에 대하여 검토, 논의하고 결정한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이에 지원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2.2. 프로그램을 통한 건축완성 능력

6.2.3. 서론(issue)부터 해답(solution)까지의 아이디어를 풀어가는 과정

6.2.4. 주제 관련 적합성 및 독창성

6.2.5. 심사위원들은 최종평가 후 심사평을 제출한다.

6.3. 심사

심사는 총 3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 선정자만이 다음 단계 심사에 참여 가능.

1차 심사: 1차 제출서류 심사(총 지원자의 10% 내외 선발)

2차 심사: 2차 제출물 심사를 통해 3차 심사 대상자 선정

3차 심사: 공개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최종 입상자 선정

7. 참가비

7.1. 작품등록비: 5만원(KRW)

7.2. 주의사항: 결제 시 지원자 본인 명의의 카드 및 통장으로 결제 요청

※납부된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7.3. 홈페이지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계좌번호: 국민은행 488401-01-003674)

8. 시상

- 8.1. 대상 1점: 상장, 상패 및 상금 1,000만원(KRW)
- 8.2. 우수상 4점: 상장, 상패 및 상금 각200만원(KRW)
- 8.3. 특선 약간점: 상장, 상패
- 8.4. 입선: 상장 및 상패
- 8.5. 상금에는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세법에 따름

9. 참가등록

9.1. 참가등록

지원자는 참가등록 기간인 2023년 4월 ~ 7월 12일(수) 17시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참가등록 및 등록비를 납부해야 함

웹사이트 : www.kia.or.kr > 참여마당 > 대한민국건축대전 일반공모전 >공고>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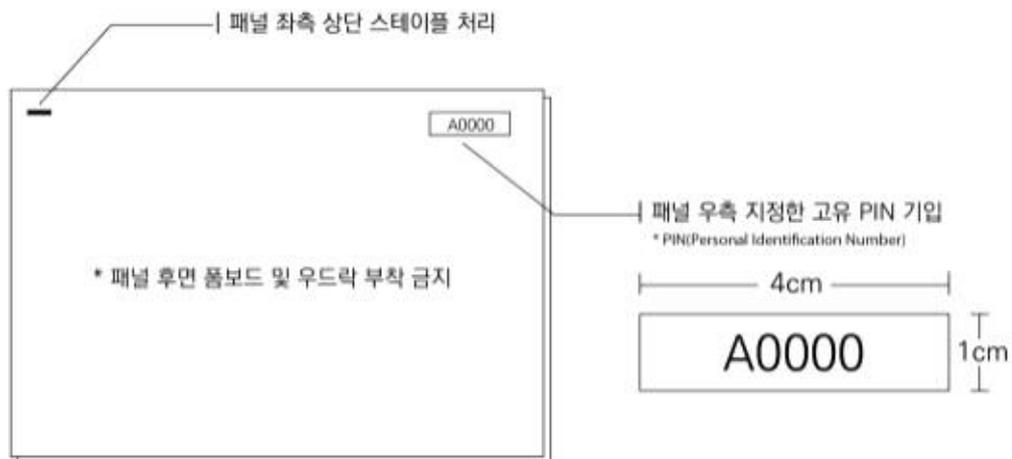
- 9.2.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익명성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지원자는 참가 등록 시, PIN(알파벳 하나와 아라비아 숫자 4자)를 지정해야함. 심사 결과는 모두 PIN으로 공지됨

10. 1차 작품 제출서류(참가등록 완료자에 한하며, 두가지 모두 제출)

*패널 인쇄물(가로) A3 2매

*디지털파일(가로) (PDF 2매를 묶어서 10MB 이내)

10.1. 패널 인쇄물 A3 2매 (좌상철 스테이플 처리 필수/ 후면 폼보드 우드락 부착 금지)



- * 패널 우측상단에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표기
가로(4cm)×세로(1cm) 표 안에 흰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기입
- * 텍스트 폰트는 최소 9포인트 이상
- * 양면 인쇄금지 (인쇄물은 단면으로 A3사이즈 2매로 제작하여 제출)
- * 패널 포함사항
내용: 그림, 사진, 스케치, 텍스트 등을 가지고 자유롭게 개념위주로 구성한다.(개념 위주란 최종결과물이 아닌, 문제제기와 앞으로 풀어갈 방향성 등을 건축적으로 제시함을 의미)(가로 형태로 제작)
- * 패널 인쇄물 A3 2매에는 참가자 인적사항 기입 금지 (성명, 학교 등)

10.2. 디지털 파일 자료 제출(E-mail 온라인 제출)

패널 이미지 디지털 파일(PDF 10MB 이내)을 저장해서 온라인 제출

*패널 인쇄물/디지털 파일 두가지 모두 제출해야 참가등록 완료자로 인정.

파일명: 성명_PIN(ex: 홍길동_A1234)

온라인 제출 E-mail: competition@kia.or.kr

※ 주의사항: 파일로 제출하는 이미지 내 PIN, 성명, 소속 삽입 금지
(인쇄물과 다르게 PIN 제외한 파일을 제출)

10.3. 제출 방법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 인정)

제출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건축가협회 일반공모전 담당자 앞

11. 2차 작품 제출품 (1차 심사 선정자에 한함)

*건축 모델(모형)

*패널 인쇄물

*패널 디지털파일(PDF_20MB 이내)

11.1. 모델(모형 및 케이스)

*건축 모델(모형): 최대 가로 600*세로 600*높이 600mm 체적 안에서 자유롭게 구성(단, 자립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해야 하며, 함께 제출하는 케이스 위에 자립할 수 있는 1개의 모형으로 제작해야함)

*단, 위의 사이즈는 최대 사이즈이며 지원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그 체적 안에서 자유롭게 작품을 표현하여 제작함

*케이스: 폼보드10T(백색)를 사용한 박스 형태

-사이즈: 내경 가로600*세로 600*높이 600mm

(케이스의 외부 모서리 부분은 마스킹 테이프 사용 마감 옷핀, 핀셋, 바늘류 사용금지),
케이스의 옆면(1개면)을 오픈하여 모형을 꺼낼 수 있도록 제작

※평면 상위 오픈 금지, 별첨 참고



※본 예시는 2차 모형 제출시의 케이스 제작에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모형을 케이스에 담아도 파손되지 않게 제작 해야함. 손잡이는 제작하지 않음.

11.2. 패널 인쇄물 1매

* 규격 가로 600 * 세로 1,200mm 1매

* 단면 인쇄물(세로방향), 패널은 PET지로 인쇄, 족자형 배너로 제작 후 제출



※본 예시는 족자형 패널 인쇄물 제작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11.3. 디지털 파일 자료 제출

패널 이미지 디지털 파일((PDF_20MB 이내)/300dpi 이상)

파일명: 성명_PIN(ex: 홍길동_A1234) *메일명 동일

※주의사항: 파일로 제출하는 이미지에는 PIN, 성명, 학교명 삽입 금지, 중복제출 금지

11.4. 제출 방법

·패널 디지털 파일: 온라인(이메일) 제출_E-mail: competition@kia.or.kr

·패널 및 모형: 방문 접수

*제출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우편제출 불가

※제출물 3가지 모두 제출해야지만 2차 접수 완료

※제출물 패널(인쇄물)의 규격 및 제작형태는 추후 전시 기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2차 작품 제출물 관련 공지 예정.

11.5. 권장사항

- 2차 작품은 성인 1인이 들어서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로 제작해야 하며, 이동 및 보관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고 완성도 있게 제작해야 함.

12. 3차 공개 심사 프레젠테이션

- 12.1. 대상: 2차 심사에서 선정된 3차 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평가
- 12.2. 심사방식: 동영상에 포함된 presentation을 제작하여 발표
- 12.2. 발표시간: 발표5분, 질의응답 5분
- 12.3. 발표자료: 파워포인트, 한쇼 등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구성(PDF로 변환 필수).
동영상 사용 필수 (전체 300MB이하)
- 12.4. 자료제출: 공개평가 1일전 17시까지 이메일제출(폰트포함), 심사 당일 변경 금지
- 12.5. 발표언어: 한국어 또는 영어
- 12.6. 발표장소: 추후 공지

13. 공식언어 및 단위

- 13.1. 공식 언어: 한국어와 영어
- 13.2. 계량 단위: 미터법(Metric System)

14. 기타규정

- 14.1. 지원자는 공모전에 참가등록을 함으로써 이 규정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지원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 14.2. 1차 제출 작품은 반출되지 않음.
- 14.3. 1차 작품과 2차 작품의 작품제목 및 개념이 동일해야함.**
- 14.4. 등록확인 및 지원자의 인적사항, 작품제목(ID 및 PIN제외)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하며, 수정은 등록 기간 중에만 가능함.
- 14.5. 지원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공모전의 규정을 어겼을 경우, 타 공모전에 지원했던 작품을 재제출한 경우, 타인의 작품을 모방했다고 공모전 심사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상이 취소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14.6. 지원자는 타인의 저작물을(자료)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함. 별도의 출처 없이 무단 사용 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14.7. 제출 작품에는 지원자의 PIN 이외에는, 지원자를 알릴 수 있는 어떤 표현(학교, 이름 등)을 할 수 없음.
- 14.8. 작품의 저작권은 지원자에게 있으며 작품집 및 기타 홍보 등에 지원자의 작품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은 주최와 후원사에게 귀속됨.
- 14.9. 작품집 제작 및 전시를 위해 본 협회에서 입상(선)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응해야 함**
- 14.10. 질의/응답 및 기타 문의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 질문 게시판 혹은 이메일 (competition@kia.or.kr) 통해서만 가능함
- 14.11. 공모전에 관한 모든 변경 및 추가사항들은 공모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수시로 게시되며, 변경사항에 대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14.1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당 해년도 건축대전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따름.

[별첨1. 주제 설명]

2050년의 우리의 건축과 도시 초연결 + 초융합 + 초지능의 시대

도시와 건축의 전환

1950년, 인구 천만 이상을 가진 도시는 오직 뉴욕과 도쿄밖에 없었다. 메가시티라고 불리는 인구 천만의 도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늘어나 서울도 1990년에는 메가시티에 합류하게 되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18%가 메가시티에 거주하고 전 세계 경제활동의 66%가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30년에는 전세계 인구 중 약 6억 3천만 명이 약 40개의 메가시티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¹.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향후 미래 모습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몇 개의 메가시티들이 성장할 수도 있고, 점차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국토 전체가 하나의 원시티스테이트(One City State)로 전환될 수도 있다. 아니면 비도시지역들을 중심으로 더욱 분산된 미래의 모습도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례 없이 인구와 부가가치 일부 도시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및 건축 환경의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도시연담화(urban sprawl), 낮은 생산성, 단절, 혼잡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재의 도시화 현상과는 달리, 미래의 도시들은 보다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과 운송 시스템을 갖추고 더욱 포용적인 열린 도시 건축 환경으로 구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오늘날, 기존의 건축의 개념들이 변화하고 있다. 로봇 공학, 3D 프린팅, 패브리케이션의 발전과 더불어 파라메트릭 설계기술은 건축의 물리적 한계에 도전 중이다. 이제는 집을 3D 프린팅으로 인쇄할 수 있으며, 로봇은 육체 노동을 대체하고 사람이 작업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훨씬 더 복잡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².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의 시대, 도시와 건축의 미래

미래의 도시들은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의 도시가 될 것이다. 초연결된 도시에서는 글로벌 메가시티들 간의 정보, 물류, 인구의 흐름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기술과 산업이 초융합된 도시는 기존의 것들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산업과 기회들을 창출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으로 도시들은 초지능화되고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해질 것이다.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은 미래의 건물에도 적용된다. 지능형 빌딩 시스템과 각종 첨단 기술(로봇공학, 자율주행, 인공지능, 5G, 클라우드 컴퓨팅)이 융합/연결된 공간 인프라를 갖추면서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일상이 된 유연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건축대전에서는 “2050년의 우리의 건축과 도시”는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지 생각해볼 것을 제안한다. 참가자들이 잠재적 “퍼스트 무버(first mover)³”가 되어 건축과 도시 설계 분야에서 실험적인 전략과 창의적인 개념들을 예측하고 탐구하기를 기대한다.

1 지역 유럽위원회의 통계, 2030 보고서에 대한 글로벌 동향

2 미래를 다시 생각하다, “2050년 건축은 어떠한 것인가”

3 “4차 산업혁명의 선도자”를 정의하는 단어

Architecture and the Cities in 2050

Era of Hyper - Connectivity + Convergence + Intelligence

Cities and Architecture in Transition.

In 1950, New York and Tokyo were the only two cities in the world with a population of over 10 million. These 'Megacities' grew rapidly in number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The metropolitan city of Seoul also joined the list in 1990, and today these cities account for 66% of the world's economic activity and is home to 18% of the world's population. By 2030, it is estimated that around 630 million people will live in approximately 40 megacities¹. throughout the world. As a result, how will the future of Korea change? Several megacities may appear and with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the entire country may be transformed into a One City State. Or perhaps we could envision a future that is based on a more decentralized future, centered on non-urban regions.

This unprecedented transition of population and wealth in several urban regions poses new challenges in terms of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nd architectural environment. In contrast to the current pattern of urbanization with issues of urban sprawl, low productivity, segregation, and congestion, we hope that the Megacities of the future will be constructed with efficient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systems while creating a more inclusive and open urban environment.

Today, traditional boundaries of architecture are also being questioned. Parametric design along with developments in robotics, 3D printing, and fabrication techniques are questioning the physical limitations of construction and architecture. We can now 3D print our homes; robots can replace arduous manual labor and can perform far more complex tasks in even harsh environments².

Era of Hyper-Connectivity, Hyper-Convergence, Hyper-Intelligence, the future of Architecture and the City

Our cities of the future will be in a state of Hyper-Connectivity, Hyper-Convergence, and Hyper-Intelligence. Hyper-Connectivity will allow the flow of information, goods, and people to be in constant flux between global Megacities, and Hyper-convergence of technology and industry will re-structure the existing and create new industries and cross-industrial opportunities. In addition, machine learning in conjunction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will allow cities to be more Hyper-intelligent, efficient, and sustainable.

Hyper-Connectivity, Hyper-Convergence, and Hyper-Intelligence may also be applied to buildings of the future. Future buildings may adopt intelligent building systems, spatial infrastructure that promotes technological convergence between fields in robotics,

autonomous driving, artificial intelligence, 5G, cloud computing, and a flexible environment that has become the New Normal in the post COVID-19 era.

For this year's competition, we ask participants to imagine the "Architecture and Cities in 2050". As potential "First Movers"³, participants are expected to anticipate and explore experimental strategies and creative concepts in the fields of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1. Statistics from 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 The Global Trend of 2030 Report
2. Rethinking the Future, "What will the architectural practices be like in 2050"
3. A term used in reference to 'leaders or pioneer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